



신라 혁거세 국조(國祖) 신화의 형성 시기와 배경

The Background and Period of the myth that made Hyukgeose the founding father in Silla Dynasty

저자 (Authors)	김선주 Kim, Sun Joo
출처 (Source)	역사와실학 68 , 2019.4, 5-31 (27 pages) The Journal of History and Practical Thought Studies 68 , 2019.4, 5-31 (27 pages)
발행처 (Publisher)	역사실학회 The Historical Society of Yeoksa Silhak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8010942
APA Style	김선주 (2019). 신라 혁거세 국조(國祖) 신화의 형성 시기와 배경. 역사와실학, 68, 5-31.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8/27 13:58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신라 혁거세 국조(國祖) 신화의 형성 시기와 배경

김선주*

- I. 머리말
- II. 혁거세 신화의 내용과 특징
- III. 사로국 단계 시조 인식과의 관계
- IV. 혁거세 국조 신화의 형성 배경
- V. 맺음말

<국문초록>

현전하는 신라의 문헌자료에는 혁거세를 국조로 하는 건국신화가 실려 있다. 신라는 사로국을 모체로 주변 진한 여러 나라를 병합하면서 성장하였다. 신라 문헌자료에 보이는 초기 기록은 사로국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므로 혁거세는 신라 초기 왕실인 소위 '박씨'의 시조이자 사로국의 국가시조로 이해해 왔다.

그런데 혁거세 신화에서는 역사적 인격으로서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혁거세 신화는 건국과 관련된 활동이나 정치적 행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또한 혁거세는 고대 건국신화에 보이는 선민의식이나 영웅전승적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 반면 신격으로서 광명신, 천신의 성격이 두드러졌다. 이는 혁거세가 사로국 형성과 관계가 있는 역사적 시조가 아니라, 관념적으로 만들어진 시조였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혁거세 신화는 알영 전승, 6촌장 전승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혁거세를 국조로 하는 신화가 6촌의 형성을 배경으로 만들어졌음을 보여준다. 또한 혁거세 신화의 신화소를 바탕으로 혁거세 신화는 김씨가 신라 왕위를 독점하는

* 중앙대학교 다빈치교양대학 교수

마립간시기에 만들어졌던 것으로 보았다. 혁거세는 사로국이 아닌 신라 국가의 국조였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로국 단계에서는 조상신과 천신 두 가지 계통의 제사가 있었다. 혁거세는 천신 신앙과 관련이 있었다. 천신과 별도로 조상신 제사가 있었는데, 사로국에서 조상신, 시조로 인식되었던 존재는 알영으로 이해했다. 그런데 사로국이 주변 소국들을 병합해 가면서 신라 국가로 변화된 뒤 혁거세를 국조로 하는 건국 신화가 형성되었다. 마립간기에 설립된 신궁은 혁거세 국조 형성과 관련이 있었다.

그러므로 혁거세는 ‘박씨’ 표현되었던 초기 왕실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이해했다. 혁거세의 신화적 속성은 천강신화이며, ‘알지거서간’이라는 표현 등을 볼 때 오히려 혁거세는 김씨의 시조인 알지 전승과 유사했다. 이는 혁거세의 국조 신화의 형성이 사로국 단계의 초기 왕계가 아닌 김씨 족단과 관련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마립간기 이후 김씨들이 왕위를 독점하면서 새로운 국조 신화체계를 모색하게 되었다. 김씨 족단은 알지를 시조로 하는 전승이 있지만, 신라 전체의 국조로 내세우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국가 체제로 성장하면서 원시적인 족단별 시조신화를 흡수하면서, 사상적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국가 시조가 필요하였다. 이 과정에서 사로국 단계에 천신이 인격화되어 신라의 국조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또한 사로국 단계에 시조로 인식되었던 알영은 시조비로 재편되었다.

주제어 : 신라, 건국신화, 혁거세, 사로국, 마립간, 김씨, 신궁

I. 머리말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실려 있는 신라의 건국신화에는 혁거세를 건국 시조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문헌 자료를 바탕으로 혁거세는 신라의 건국시조이며, 나아가 신라 초기 왕위를 계승했던 소위 ‘박씨’로 표현했던 왕실의 족조(族祖)로 이해해 왔다. 그러므로 신라에서 건국 시조를 기념하는 시조묘의 대상 역시, 시조가 혁거세라는 인식을 전제로 주로 혁거세로 이해하였다.¹⁾

1) 시조묘 제사에 대한 논의는 주로 제사의 성격이나 의미를 중심으로 이

그런데 현전하는 형태의 신라의 건국신화가 실려 있는 문헌자료는 고려시대에 편찬된 것이다. 건국신화가 형성되기 시작한 시기부터 문헌자료로 정착하기까지 시간적 간격이 크다는 것은 그 사이에 많은 변개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현전하는 신라의 건국신화는 시조인 혁거세를 중심으로 알영과 육부조(六部祖) 전승이 포괄되어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신라의 건국신화가 일시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형성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신라의 건국신화를 살펴보면 시조비로 설정된 알영이 혁거세 못지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알영은 독자적인 탄생담이 실려 있을 뿐 아니라 혁거세와 함께 후대에 이성(二聖)으로 존송되었다. 건국신화에서 부부나 형제는 실제적 관계이기 보다는, 그 인물로 대표되는 집단의 결합에 대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신라의 건국신화에 포괄되어 있다는 점에서 알영은 신라의 국가 형성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 유력 집단의 시조로, 구체적으로 신라의 모체가 되는 사로국의 시조였을 가능성을 제기하게 되었다.²⁾

이 과정에서 현전하는 신라의 건국 신화에서 건국시조로 설정되어 있는 혁거세에 대한 다른 이해의 가능성을 찾게 되었다. 혁거세는 사로국 단계의 시조 인식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혁거세를 국조로 하는 현전하는 형태의 건국신화는 언제, 어떠한 배경에서 형성된 것일까? 나아가 혁거세는 소위 ‘박씨’로 표현해 왔던 초기 왕실이나 시조묘 제사와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혁거세를 국조로 하는 건국신화의 형성 시기와 그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실려 있는 혁거세 신화의 신화소나 서사구조를 통해 혁거세의 신화적 정체성을 접근하고자 한다.

루어졌는데, 관련 연구사 정리는 다음 논문이 참조된다. 재미하, 「신라의 시조묘」 『민속학연구』 12,, 3003 ; 김창석, 「신라 시조묘의 성립과 그 제사의 성격」 『역사문화연구』 26, 2007 ; 김선주, 「신라의 알영 전승 의미와 시조묘」 『역사와 현실』 76, 2010.

2) 김선주, 「신라의 건국신화와 關英」 『新羅史學報』 23, 2011.

다음은 혁거세 신화의 특징이 가지는 의미를 신라의 국가 발전 과정 속에 살펴보고자 한다. 혁거세 국조 신화의 형성 시기와 함께, 혁거세 국조 인식이 어떠한 정치적, 사회적 배경에서 형성되는지를 해명해 보고자 한다.

이는 혁거세 신화 자체만이 아니라 신라 건국신화의 형성과정과 재편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켜 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신라 초기사와 왕실의 성격을 해명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나아가 시조묘, 신궁 등 국가 제사에 대한 이해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II. 혁거세 신화의 내용과 특징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신라의 건국신화를 전하고 있다.

A) 시조의 성은 박씨(朴氏)이고 이름은 혁거세(赫居世)이다. 전한 효선제 오봉 원년 갑자 4월 병진 【혹은 정월 15일이라고도 한다】에 왕위에 오르니, 이를 거서간이라 했다. 그때 나이는 13세였으며, 나라 이름을 서나벌이라 했다.

이보다 앞서 조선 유민들이 산곡 사이에 나뉘어 살아 육촌을 이루었다. ... 중략 ... 이것이 진한 육부(六部)가 되었다. 고허촌장 소별공이 양산 기슭을 바라보니, 나정 옆 수풀 사이에서 말이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다. 이에 가보니 문득 말은 보이지 않고 큰 알이 있어, 이를 갈라보니 갓난아이가 나왔다. [아이를] 거두어 길렀는데, 나이 10여 세가 되자 재주가 특출하고 숙성하였다. 6부인들은 그 출생이 신이하므로 이를 받들고 존경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받들어 임금으로 삼은 것이다. 진인(辰人)은 박[호(瓠)]을 박이라 했고 처음에 [혁거세가 태어났던] 큰 알이 박과 같았기 때문에 박(朴)으로 성을 삼았다. 거서간은 진(辰) 사람들의 말로 왕을 가리킨다. 【혹은 귀인을 부르는 칭호라고 한다.】(『三國史記』卷一 新羅本紀 第一)

B) 진한 땅에는 옛날 육촌(六村)이 있었다. ... 중략 ...

진한 지절 원년 임자【고본(古本)에 이르기를 건호 원년이니 건원 3년이니 한 것들은 다 잘못이다.】 3월 초하룻날 6부의 조상들이 각각 자제들을 데리고 다 함께 알천 언덕 위에 모여 의논하기를 “우리들이 위로 백성들을 다스릴 만한 임금이 없어 백성들이 모두 방종하여 제멋대로 놀고 있으니 어찌 덕이 있는 사람을 찾아내어 그를 임금으로 삼아 나라를 창건하고 도읍을 정하지 않을 것이라!” 하였다. 이때에 모두 높은 데 올라가 남쪽을 바라보니 양산 밑 나정 곁에 이상한 기운이 번개처럼 땅에 드리우더니 웬 흰 말 한 마리가 무릎을 꿇고 절하는 시늉을 하고 있었다. 조금 있다가 거기를 살펴보니 보랏빛 알 한 개【또는 푸른 빛 큰 알이라고도 한다.】가 있고 말은 사람을 보자 울음소리를 길게 뿜으면서 하늘로 올라갔다. 그 알을 쪼개 보니 형용이 단정하고 아름다운 사내아가이 있었다. 놀랍고도 이상하여 아이를 동천(東泉)【동천사는 사뇌별 북쪽에 있다.】에서 목욕을 시키매 몸에는 광채가 나고 새와 짐승들이 모조리 춤을 추며 천자가 진동하고 해와 달이 맑게 빛났다. 따라서 이름을 혁거세왕【아마도 향언(鄉言)일 것이다. 혹은 불구내왕(弗矩內王)이라고도 하니 광명으로써 세상을 다스린다는 말이다. 설명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이는 서술성모가 낳은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 사람의 선도성모를 찬미하는 글에 ‘어진 인물을 배어 나라를 창건하라.’라는 구절이 있으니 이것을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라고 하였다. 또는 계룡(鷄龍)이 상서를 나타내어 알영을 낳았으니, 또한 서술성모의 현신이 아니겠는가!】라고 하고 왕위의 칭호는 거슬한【혹은 거서간이라고도 하니, 이는 그가 처음 입을 열 때에 자신을 일컬어 말하기를 알지거서간이 크게 일어난다 하였으므로, 그의 말에 따라 이렇게 불렀으니 이로부터 임금(王者)의 존칭으로 되었다.】이라 하였다.

당시 사람들이 다투어 축하하여 말하기를 “이제 천자가 이미 이 땅에 내려왔으니 마땅히 덕이 있는 여군(女君)을 찾아서 배필을 정해야 하겠다.”고 하였다. 이날 사랑리 알영정【또는 아리영정이라고도 한다.】에서 계룡이 나타나서 왼쪽 옆구리로부터 동녀【혹은 용이 나타나 죽으매 그 배를 가르고 얻었다고도 한다.】를 낳으니 자색이 뛰어나게 고왔다. 그러나 입술이 닭의 부리 같은지라 월성 북천에 가서 목욕을 시켰더니 그 부리가 튕겨져 떨어졌으므로 그 천의 이름도 따라서 발천이라 하였다.

궁실을 남산 서쪽 기슭【지금의 창립사이다.】에 짓고는 두 명의 신성한 아이를 모셔 길렀다. 사내아이는 알에서 나왔는지라 [그] 알

은 박과 같이 생겼고 향인들이 박을 박이라 하므로 따라서 성을 박(朴)이라 하였다. 계집아이는 그가 나온 우물 이름으로써 이름을 지었다. 두 성인의 나이가 열세 살이 되자 오봉(五鳳) 원년 갑자(甲子)에 남자는 위에 올라 왕이 되고 이어 여자으로써 왕후를 삼았다.

나라를 다스린 지 61년 만에 왕이 하늘로 올라갔는데 이레 뒤에 유해가 땅에 흩어져 떨어졌으며 왕후도 역시 죽었다고 한다. 국민들이 함장을 하려고 했더니 큰 뱀이 나와서 내쫓아 못하게 하므로 5체를 5릉에 각각 장사지내고 역시 이름을 사릉(蛇陵)이라고도 하니 담업사 북쪽 왕릉이 바로 이것이다. (『三國遺事』卷一 紀異第一 新羅始祖赫居世王)

위에서 소개한 신라의 건국신화를 살펴보면 두 사서 모두 혁거세를 신라의 시조왕으로 설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두 사서 모두 혁거세 외에 알영과 6촌(부)의 존재를 포괄하고 있다. 알영은 시조비로 설정되어 있으며, 6촌(부)은 혁거세 이전의 선주집단으로 혁거세의 탄생과 즉위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건국시조인 혁거세에게서 건국 시조로서의 면모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 우선 혁거세의 경우 건국과 관련된 실질적인 활동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A)에서는 혁거세의 즉위가 6부의 추대에 의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B)에서 혁거세의 탄생 과정이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는데, 육부조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혁거세 관련 기사를 살펴보면 탄생, 혼인, 죽음에 대한 기록이 중심이다. 이러한 모습은 다른 고대 건국신화에서 건국시조가 건국에 직접적으로 간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고조선의 건국신화에서는 환웅이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인간 세상에 내려오고 있으며, 하강한 뒤에도 인간 세상에 적극 개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³⁾ 고구려의 건국신화에서도 시조왕인 주몽은 주체적으로 새로운 땅을 찾아 무리를 거느리고 남하하는 것으로, 또한 비류국과 같

3) 『三國遺事』卷1 紀異2 古朝鮮 王儉朝鮮.

은 주변국을 합병하는 모습이 보인다.⁴⁾ 백제 건국신화에서도 시조 왕인 온조가 남하하는 과정이나 도움을 정하고 비류의 미추홀을 합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⁵⁾

가야의 건국신화는 9간의 요청에 의해 시조왕이 하강했다는 구조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신라와 비슷하다. 그런데 시조왕인 수로는 하강 후에는 도움을 정하고 왕궁을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왕비를 납입하는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간여하고 있다.⁶⁾ 반면 혁거세는 건국과 관련된 행적이 전혀 보이지 않으며, 시조비인 알영을 납입하는 과정에도 개입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혁거세 신화에서는 선민사상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으며 영웅전승이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⁷⁾ 주위의 부족이나 소국들을 정복하거나 또는 흡수, 동화하면서 성립시킨 건국신화는 선민사상을 기반으로 영웅전승적 성격을 가지는데 신라의 혁거세 신화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⁸⁾

이에 대해 혁거세 신화에서 영웅전승적 요소도 보이지 않는 것은 유이민인 박씨 세력이 강한 세력으로 형성되지 못하고 선주한 토착세력에게 융해되어 버렸기 때문으로 해석하였다. 대신 탈해 신화에서 영웅전승 성격이 보인다면 영웅의 성격을 석탈해에 맡기고, 조상의 성격을 김알지에게 맡기고 박혁거세는 천명을 떠맡

4) 『三國史記』 卷13 高句麗本紀1 始祖東明聖王.

5) 『三國史記』 卷23 百濟本紀1 始祖溫祚王.

6) 『三國遺事』 卷2 紀異2 駕洛國記.

7) 김두진, 「신라 탈해신화의 형성기반」 『한국고대의 건국신화와 제의』, 일조각, 1999, p.274~275.

8) 고구려의 주몽 신화는 천제의 자손인 주몽이 대소의 형제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새로운 천지를 찾아 떠나 국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영웅전승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김두진, 「고구려 건국신화의 영웅전승적 성격」 『한국고대의 건국신화와 제의』, 일조각, 1999, p.135~146), 백제의 온조 신화 역시 신하들을 거느리고 남하하여 새로운 천지를 개척해 나가는 영웅 전승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김두진, 「백제시조 온조 신화의 형성과 그 전승」 『한국고대의 건국신화와 제의』, 일조각, 1999, p.210~211.)

는 식의 역할 분담 내지 상보적 관계가 이루어졌다고 해석하기도 한다.⁹⁾

그런데 혁거세의 영웅전승적 역할을 대신하였다는 탈해 세력이 신라에서 박씨 세력보다 강한 세력을 형성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한다. 그러므로 탈해 신화에서 보이는 영웅 전승의 성격이 혁거세신화에서 보이지 않는 것은 다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혁거세조에 도 혁거세의 정치적 행적으로 볼 만한 기사가 보이지 않는다. 혁거세와 관련해서는 탄생과 납비, 죽음 등 개인적인 사안이 중심이다. 그 외에 일식이나 해성과 같은 자연현상에 대한 설명이나 낙랑, 왜, 마한 등 주변국과의 충돌 기사만 보인다. 시조비인 알영과 함께 육부를 순행했다는 것 외에 정치적 행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또한 역사적 사실로 볼 수 있는 기사도 보이지 않는다.

혁거세가 신화적 인물이라는 것을 감안한다고 해도 고조선, 고구려, 백제 등 다른 고대국가의 건국 시조와 차이가 있다. 혁거세는 부모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반면 단군, 주몽, 온조 신화에서는 부모가 설정되어 있다. 이는 혁거세가 역사적 시조라기보다는 신화적 구상 존재일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런데 혁거세는 인격적인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반면 광명신, 천신의 성격이 두드러지게 보인다. 앞의 B)를 살펴보면 혁거세는 하강 과정에서 이상한 기운이 전광처럼 땅에 비추었다고 하였으며, 목욕을 시켰더니 몸에서 광채가 나고 해와 달이 빛났다고 한다. 이는 혁거세가 광명적 존재이자, 그 광명으로 현현된 천신적 존재임을 보여준다.¹⁰⁾

뿐만 아니라 혁거세가 나라를 다스린 뒤 승천했다고 한다. 이름을 혁거세, 불구내라고 했으며 그 의미가 광명으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뜻이라는 점 역시 광명신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하

9) 김두진, 앞의 책, p.274~275.

10) 나희라, 『신라의 국가제사』, 지식산업사, 2003, p.71.

고 있다.¹¹⁾ 혁거세의 탄생에 등장하는 백마 역시 태양의 상징-태양신, 천(天)으로 이해하고 있다.¹²⁾ 이러한 신화소와 서사구조는 혁거세가 천신, 광명신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혁거세는 단순히 사령(死靈)이나 조령(祖靈)으로 관념되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신격(Deity)을 지닌 시조신, 역사적 인격으로서보다 신격으로 믿어졌다고 보았다.¹³⁾ 그런데 고대국가의 건국신화에서 시조왕이 신격의 성격만 보이는 것은 아니다. 고구려, 백제의 시조왕은 건국과 관련된 활동이나 인격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다.

이는 신라의 혁거세 신화가 고구려나 백제와 다른 형성 배경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신라의 혁거세 신화는 고구려, 백제의 건국신화와 달리 인위적으로 정교하게 짜여진 느낌을 준다는 지적이 있었다.¹⁴⁾ 혁거세 국조 신화가 국가 초기의 건국 시기가 아닌 후대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한다.

한편 신라의 건국 시조를 혁거세가 아닌 2대 남해왕으로 보기도 한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에는 혁거세의 즉위년은 갑자년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다음 왕인 남해왕의 즉위 역시 갑자년으로 그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남해왕을 『삼국유사』에서 ‘삼황제일’로 표현되고 있으며, 혁거세 외에는 거서간이라는 왕의 칭호가 붙지 않았는데 남해왕은 차차웅과 함께 거서간의 칭호가 붙은 점, 다음 왕이 고구려의 유리와 같이 繼次의 뜻을 가진 유리왕이라는 점 등에서 남해왕이 시조왕이었을 것으로 보았다.¹⁵⁾

11) 불구내의 내를 혼동하면 불구안으로 몽고어와 퉁구스어의 Burkhan과 같은 음으로, 이는 천신, 또는 광명신을 나타낸다고 한다.(윤경수, 「박혁거세신화의 원형상징성 : 신화의 원천 고증을 중심으로」 『比較文化研究』 7, 1996, p.47.; 김기홍, 「신라 시조 박혁거세의 실체」 『통일인문학』 61, 2015, p.393.)

12) 문경현, 『신라사연구』, 경북대학교 출판부, 1983, p.34~35. ; 윤경수, 위의 논문, p.47.

13) 나희라, 앞의 책, p.71.

14) 김두진, 앞의 책, p.144.

15) 문경현, 『신라사연구』, 경북대학교 출판부, 1983, p.36.

과연 신라에서 남해왕을 시조왕으로 인식했었는지의 문제와는 별개로 혁거세가 국가 형성 당시 시조왕으로 여기지 않았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혁거세 신화에서는 건국 과정에서의 역사 경험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은, 혁거세 신화가 국가 형성 초기가 아닌 후대에 형성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한다. 또한 혁거세에게서 인격적인 면모는 나타나지 않는 반면 천신으로서의 신격이 크게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본래 자연신, 천신이 후대에 인격화하여 조상신으로 변모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Ⅲ. 사로국 단계 시조 인식과의 관계

신라는 사로국을 모태로 주변의 진한 여러 소국들을 병합하면서 신라로 성장하였다. 현전하는 건국신화에서는 혁거세가 신라 초기 왕실의 시조이자 건국 시조로 설명되어 있다. 이들 사료를 그대로 취신한다면 혁거세는 사로국 단계의 국가 시조이며, 초기 왕실의 족조(族祖)로 해석하게 된다. 그러므로 혁거세 신화는 사로족의 발생과 관련되어 성립된 것으로,¹⁶⁾ 혁거세는 사로국의 시조로 이해하기도 한다.¹⁷⁾

그런데 신라의 건국신화를 살펴보면 혁거세의 탄생과 즉위는 6개 집단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6개 집단은 혁거세의 하강 이전에 선주해 있었던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혁거세의 하강은 6개 집단이 하늘에 대한 제사를 드리면서 왕을 청하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 설명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혁거세의 즉위 역시 그 대표자들에 의해 추대된 것으로 나온다. 즉위 후에 시조비인 알영과 6부를 순행을 했다는 내용이 보인다.

16) 황패강, 『한국 신화의 연구』, 새문사, p.7 ; 이종욱, 「혁거세신화를 통해 본 서라벌소국의 형성」 『한국고대사탐구』 24. 2016, p.10.

17) 김두진, 앞의 책, p.273.

이는 혁거세 국조 신화가 6개의 중요한 집단이 국가를 구성하고 있던 상황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마립간기에는 6부의 존재가 인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혁거세 신화 형성의 하한을 마립간기로 이해할 수 있다.¹⁸⁾ 구체적인 형성 시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해가 있는데 이사금 시기로 보기도 한다.¹⁹⁾ 이러한 해석은 혁거세를 사로국 단계의 시조로 이해한 것이다.

반면 혁거세 추대 신화는 사로국이 진한 육촌 지역을 복속시킨 후 진한의 맹주로 추대된 것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혁거세 신화는 소국 단계의 사로국이 아니라 진한지역을 영역으로 하는 국가, 즉 신라국가의 건국신화로 이해한 것이다.²⁰⁾

뿐만 아니라 혁거세의 왕호인 거서간은 진한인의 언어로 왕을 의미하였는데, 신라국가 성립 이후 정치권력을 대표하는 군장을 지칭한다고 하였다. 간은 진한 소국의 군장이 신라국가 성립 이후에 사로국왕을 정점으로 서열화한 것으로 마립간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혁거세 국조 신화가 사로국의 건국사실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신라국가의 건국을 반영한 것이라고 본 것이다.²¹⁾

그렇다면 혁거세는 사로국 단계의 시조인식과 어떠한 관계를 가질까? 혁거세는 사로국 단계에서도 시조로 인식되었을까? 사로국 단계의 시조 인식과 관련하여 『삼국지』 동이전 한전에서 전하는 다음 기록이 주목된다.

C) 국읍에는 한 사람을 세워 천신에게 제사를 주재하게 하였는데 이를 天君이라고 한다.

D) 또한 여러 나라에는 각기 별읍이 있는데 이를 소도라고 한다. 큰 나무를 세우고 방울과 북을 달았는데 귀신을 섬겼다.

18) 나희라, 앞의 책, p.93~94.

19) 나희라, 위의 책, p.94.

20) 선석렬, 『신라국가성립과정연구』, 해안, 2001, p.80~81 ; 「사로국의 지배구조와 갈문왕」 『역사와 경계』 80, 2011, p.4~5.

21) 선석렬, 위의 책, p.79.

C)는 신라를 형성하는 지역에 ‘신라’ 국가 단계 이전 단계부터 천신 숭배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D)에서는 이 지역에 천군이 천신에게 제사지내는 것과 무당이 귀신을 섬기는 두 가지 계통의 제사가 있음을 보여준다.²²⁾ 귀신은 조상신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천신 제사 외에 조상신 제사가 별도로 있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삼국지』 동이전 한전의 기록은 사로국 단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사로국 역시 『삼국지』 한전의 설명과 같이 천신과 조상신 제사가 구별되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서는 혁거세가 천신이자 조상신의 성격을 보이고 있다. 이에 혁거세는 왕실의 시조이자 신라 지역 정체의 관념적 시조신으로, 혈연 개념에 입각한 단순한 조상 내지 시조가 아니라, 천신적 존재로 믿어진 신화적 시조로 이해하고 있다.²³⁾

그런데 천신이자 조상신의 성격을 가진 혁거세의 모습은 천신과 별도로 조상신 제사체계를 가진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삼국지』의 내용과 충돌을 하게 된다. 그런데 혁거세가 천신이면서 국조의 성격을 가지게 된 것은 사로국 단계와 구별하여 이해하면 이러한 문제가 해결된다. 혁거세는 천신의 성격이 뚜렷하게 나뉜다는 점에서, 사로국 단계에서는 국읍에서 천군에 의해 행해졌다는 천신과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이다. 사로국 단계에서 천군에 의해 제사되던 천신이 신라 국가 성립 단계에서 혁거세로 인격화하여 국조로 재정립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사로국 단계에서는 각 족단별 조상신이 있었으며, 사로국 왕실 역시 별도의 조상신이 있었다. 초기의 국가 제사인 시조묘 제사는 사로국 왕실의 조상신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사로국에서 천신과 조상신 이원적인 제사 체계로 운영되었다면, 천신인 혁거

22) 최광식, 『고대 한국의 국가와 제사』, 한길사, 1994, p.161.

23) 나희라, 앞의 책, p.71.

세를 조상신으로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한다. 사로국에서 시조로 인식되었던 대상을 천신인 혁거세 외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사로국 단계의 시조로 가장 가능성 있는 존재는 알영이다.²⁴⁾ 신라의 건국신화는 혁거세 전승만이 아니라 알영 전승도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알영은 중요한 비중으로 등장한다. 알영은 용의 옆구리에서 태어났다는 독자적인 탄생담을 가지고 있는데, 고대 건국 신화에서 신이한 탄생담은 나라를 세운 시조의 영웅적인 면모를 부각시키는 장치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알영 역시 특정 집단의 시조였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신라의 건국신화 속에 포용되어 있다는 것은 초기 신라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알영의 탄생담을 살펴보면 특정 부(촌)와의 관련이 보인다. 『삼국유사』에는 알영의 탄생에 ‘사랑리’라는 지명이 등장한다.²⁵⁾ 사랑은 육촌(부)의 하나인 돌산고허촌과 관련을 가지고 있는데, 『삼국사기』에는 고허촌장 소벌공이 혁거세를 발견하고 양육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²⁶⁾ 소벌은 솟았다는 의미로 그 의미의 한역이 고허(古墟)이며, 사벌, 소벌은 고허에서 유래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²⁷⁾

그러므로 『삼국지』 동이전에 거론되었던 신라의 모체가 되는 사로국의 실체가 고허촌(사랑)일 가능성이 있다. 알영이 고허촌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알영이 사로국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사로국의 시조는 알영일 가능성을 보여준다.²⁸⁾

조상신에 대한 제사는 천신에 대한 제사보다 지신에 대한 제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²⁹⁾ 알영에게서 지신의 성격이

24) 김선주, 「신라의 알영 전승 의미와 시조묘」 『역사와 현실』 76, 2010, p.180.

25) 『三國遺事』 卷1 紀異1 新羅始祖赫居世王.

26) 『三國史記』 卷1 新羅本紀1 始祖赫居世居西干.

27) 김철준, 「신라 상대 사회의 Dual Organization」 상, 『역사학보』 1, 1952 ; 『한국고대사학회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75, p.140.

28) 김선주, 「신라의 건국신화와 알영」 『신라사학보』 23, 2011, p.138~140.

29) 최광식, 앞의 책, p.171~172.

뚜렷하게 나타난다. 알영은 사랑리 알영정이라고 하는 우물가에서 태어나며, (계)용의 옆구리에서 나왔다고 한다. 모두 물과의 관련을 가지고 있는데, 물은 농업과 친연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용은 수신의 동물적 화신으로, 이는 알영이 수신이자 농업신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³⁰⁾ 또한 알영은 왕비가 된 뒤에 혁거세와 함께 6부를 순행하면서 농사와 양잠을 권면한 것으로 설명되어 있다. 이는 알영이 지모신인 농업신적 성격을 강하게 지녔음을 보여준다.³¹⁾

물론 천신인 혁거세에게서 농업신(農業神)의 성격도 지적되었다.³²⁾ 혁거세 하강 시점이 만물이 화생하는 계절인 3월 1일이라는 점에서 농경과 관련이 있다며 혁거세가 태어난 알을 곡령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또한 혁거세는 탄생하면서 알지거서간이라고 했다는 전승에서, 알지는 곡령적 존재를 찬양하는 호칭이라는 견해를 수용하여 신라 사회의 농업 생산의 풍요를 책임지는 존재로 인식되었다고 보았다.³³⁾

뿐만 아니라 죽음, 장례와 관련된 설화에서도 승천했다가 7일 후에 다시 땅에 떨어지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곡식의 씨앗이 뿌려지는 것과 같은 의미로 해석한 것이다.³⁴⁾ 또한 죽은 후 뱀 등장, 사룻이라는 능호, 뱀은 가을과 겨울에 동면하고 허물을 벗고 다시 산다는 점에서 뱀은 음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농경신이 될 수 있는 원형으로서의 소지가 있다고 보았다.³⁵⁾ 이에 혁거세는 불구 내왕으로서 광명적 성격을 가진 천신의 대리자이면서 신라 사회의 농업 생산의 풍요를 책임지는 존재로서 설명하기도 한다.

그런데 신라의 건국신화에서 농업신, 지모신으로서의 정체성이 강

30) 김철준, 「‘동명왕편’에 보이는 신모의 성격」 『유홍렬박사화갑기념논총』 ; 『한국고대사회연구』, 서울대학교출부 재수록, 1994, p.40~41.

31) 김철준, 위의 책, p.40~41.

32) 三品彰英, 『古代祭政 穀靈信仰』, 平凡社, 1975, p.204~230 ; 나희라, 앞의 책, p.99.

33) 나희라, 위의 책, p.67.

34) 윤경수, 앞의 논문, p.52.

35) 윤경수, 위의 논문, p.57

하게 드러나는 것은 알영이다. 혁거세는 천신의 모습이 더 두드러지고 있다. 사로국에서는 천신과 조상신(=지신)의 이중 제사 체계가 있었다. 그러므로 사로국 단계에서 혁거세는 천신, 알영은 지모신으로 대별되어 숭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가 후대 신라의 건국신화가 체계화되는 과정에서 천신인 혁거세를 국조로 정립하면서 알영이 가진 농업신의 성격까지도 덧입혀져진 것이 아닐까 한다. 혁거세를 역사적 시조로 만들기 위해 신화를 일부 편년화하여 기술하였을 것으로 본다. 『삼국사기』 신라 시조 본기로 볼 때, 거기에 권농기사와 천문이변 그리고 외부 세력과의 갈등이나 교섭 등 다소 상투적인 내용이 첨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³⁶⁾ 천신인 혁거세를 국조로 하는 신라의 건국신화로 재편되면서 사로국 단계의 조상신이었던 알영은 시조비로 재정립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IV. 혁거세 국조 신화의 형성 배경

위의 검토를 통해 혁거세는 사로국 단계의 시조가 아니라 신라 국가 단계에서 국조로 정립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사로국 단계에서 천신이 신라 국가 단계에서 조상신으로서의 성격까지 더해진 것이다. 마립간기에 설치한 신궁은 이러한 시조 인식의 변화와 관련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한다. 마립간기에 혁거세를 국조로 하는 의식과 신화가 형성되면서, 혁거세에 대한 제의를 거행하기 위한 장소로 신궁이 새롭게 만들어진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접근은 시조를 제사하는 시조묘가 있는데 왜 시조의 탄강지에 신궁을 설치하였는가에 대한 의문을 해결해 줄 수 있다. 사로국 단계의 조상신은 문헌기록에 나타나는 신라 초기 왕실 세력의 조

36) 김기홍, 앞의 논문, p.393.

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혁거세가 신라 초기 왕위를 계승했던 박씨의 시조라는 틀에서 의심이 없었다. 그러므로 시조묘의 주신도 혁거세로 이해했다.

그것은 현전하는 문헌자료에 실린 신라의 건국신화에서는 혁거세가 신라의 시조왕으로 그려져 있다는 것과 『三國史記』 제사조에 ‘남해왕 2년 봄에 ’시조혁거세묘를 처음 세웠다’는 기록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시조가 혁거세라는 것을 전제하고 시조묘의 대상을 혁거세로 규정했다.

그런데 시조묘=혁거세묘라는 이해는 시조의 탄강지에 건립되었다는 신궁의 설치 배경과 관련하여 혼란을 초래했다. 시조묘는 글자 그대로 시조 숭배와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 신궁 역시 시조와 관련하여 설명한 것이다. 그렇다면 시조묘가 있는데, 또 시조와 관련한 신궁제사를 만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에 신궁의 주신이 조상신이 아니라 자연신으로 해석하기도 했다.³⁷⁾

또는 신궁 제사가 설치된 마립기에 김씨가 왕위가 세습한다는 점에서 김씨의 시조를 모신 것으로 보았다. 김씨 시조에서도 알지, 미추, 내물, 성한 등 다양하게 해석하였다. 신궁이 설치된 시기가 김씨가 왕위를 독점하게 되는 마립간 시기라는 점에서, 김씨들의 왕권을 확립하기 위해 김씨의 시조를 모시는 신궁을 건립하게 되었다는 것이다.³⁸⁾

그런데 신궁은 나을이라고 하는 시조의 탄강지에 설립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나을은 혁거세와 관련을 가진 곳이다. 제사장소를 설립하는데 관련성이 없는 곳에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시조가 태어난 곳에 건립되었다는 신궁은 혁거세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에 신궁의 주신을 신라의 시조인 혁거세로 이해하면서, 제사의

37) 최광식, 앞의 책, p.195.

38) 신궁의 주신에 대한 연구사는 최광식, 위의 책, p.200~205 ; 채미하, 『신라 국가제사와 왕권』, 해안, p.82쪽 참조.

내용에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하였다. 조상신이 아니라 천지신으로 해석하면서 혁거세가 조상신의 성격에서 벗어나 국가신인 천지신 숭배로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보기도 하였다.³⁹⁾ 혹은 남해왕대 이래에 받아들여진 시조신앙에서는 혁거세를 중요하게 모셨는데, 신성족 관념이 형성되면서 알영에 대한 시조전승의 의미를 강화하려는 측면에서 설립된 것으로 이해했다.⁴⁰⁾ 나아가 신궁은 마립간기에 국가 정체성이 확립되는 과정에서 혁거세의 시조로서 위상을 강화하면서 일족의 시조인 시조묘를 대체하는 시설로 설치된 것으로 이해하기도 했다.⁴¹⁾

그런데 사로국 단계에서는 천신과 조상신의 이원적 체제로 운영되었다는 이해를 기반으로, 조상신=알영으로 이해한다면 혁거세를 제사하는 신궁 제사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 제사 대상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다. 또한 신궁 설치 배경을 자연신인 천신을 국조로 하는 건국신화의 정립과 관련하여 이해할 때, 김씨, 석씨, 박씨로 표현된 족단별 조상신이 있지만 천신 숭배를 인격신인 시조신으로 정립하면서 신라 전체의 시조신으로 정립하게 되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마립간시기에 즉위 초 외에 시조묘 관련 행사가 빈번하게 보인다. 또한 신궁설치 등 제사 체계에서의 변화가 보인다. 이는 천신인 혁거세를 국조로 하는 제사 체계를 만들어나가는 과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마립간기에 왜 천신인 혁거세를 국조로 하는 건국신화가 형성되었을까? 마립간기는 김씨 왕계의 왕위를 독점해 나가는 시기이다. 박, 석, 김씨가 교대를 하던 왕위는 내물마립간 이후에 김씨에 의해 독점되었다. 김씨 족단은 알지를 시조로 하는 독자적인 시조 전승을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알지는 시조비인 알영과 연관시켜왔다. 이름에서 ‘알’이

39) 최광식, 앞의 책, p.209.

40) 김두진, 앞의 책, p.284.

41) 김기홍, 앞의 논문, p.384~385.

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과, 알영은 ‘계룡’의 옆구리에서 나왔다는 탄생담과 알지의 탄생에 닭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알영은 알지 족단과 관련이 있으며, 알지 시조 전승과 관련이 있는 김씨로 이해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신라 건국신화의 체계 속에서 알지 시조 전승이 알영 시조전승과 구체적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하였다.⁴²⁾

그런데 알지를 시조로 하는 김씨 족단은 알영과 전혀 상관관계가 보이지 않는다. 신화계통에서도 알영의 경우 지신계이지만 알지는 천신계로 차이가 있다. 오히려 알지전승은 알영 보다 혁거세와 유사한 점이 많다. 다음은 김씨 시조인 알지 전승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E) 호공이 밤에 월성 서쪽 지역을 지나가다가 시림(始林)중에 큰 광명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 자줏빛구름이 땅에 뺨쳤는데 구름 속에 황금궤가 있어 나뭇가지에 걸려 있고, 그 궤에서부터 빛이 비쳐 나왔으며 흰닭이 나무 아래에서 울고 있었다. 이 광경을 왕에게 아뢰자 왕이 그 숲에 가서 궤를 열어 보았다. 그 속에 어린 남자 아이가 있었는데 누운 자세에서 곧 일어났다. 마치 혁거세의 고사와 같다. 그 때문에 알지라 이름하였다.(『三國遺事』卷1 紀異1 金闕智脫解王代)

혁거세 신화는 주로 신화소 분석을 통해 종족적 계통을 천신계로 보고 있는데,⁴³⁾ 알지 역시 천신계에 속한다. 둘 다 빛이 중요한 요소로 나온다. 뿐만 아니라 위의 E)를 살펴보면 알지의 탄생을 혁거세의 고사와 같다고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다. 또한 『삼국유사』 기이편 ‘신라시조혁거세왕’조에는 혁거세가 처음 입을 열 때에 ‘알지거서간’이라고 했다는 설명이 보인다. 알지와 혁거세가 서로 혼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알지=혁거세=박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불-봉근-울-알이라는 것이다.⁴⁴⁾ 또한 금석문에 나타나는 김씨 시조로 거론된성한

42) 김두진, 앞의 책, p.276.

43) 이병도, 「신라의 기원문제」 『한국고대사연구』, 박영사, 1976.

(星漢)을 혁거세와 연결시키기도 한다. ‘성한’의 ‘성(星)’이 ‘별’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성한의 본래 음을 ‘pur-khan’으로 보고, ‘불구내(弗矩內)’라고도 표기된 혁거세를 성한과 동일한 것으로 보았다.⁴⁵⁾

한편 알지는 마립간기 이후 신라 왕계를 독점하는 김씨의 시조 전승이다. 김씨는 마립간기 이후 신라 왕위를 독점하게 되는데, 마립간기에 김씨 왕실은 고고학적 자료에서 적석목곽분을 사용했던 집단이었다. 적석목곽분은 이전에 사용하던 토광묘와는 성격을 달리하는 새로운 묘제로, 마립간기 왕위를 독점했던 김씨 세력은 이주민 세력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런데 혁거세 신화 역시 북방 유이민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혁거세는 알에서 나왔다고 하여 난생설화이다. 난생설화는 고구려 국조 주몽과 금관가야 국조 수로에서 보이는 것으로 북방적 요소로 이해한다.⁴⁶⁾ ‘태양신과 연관된 우주난설화는 북쪽을 등지고 남쪽을 향하여 이동해 가는 계통의 민족이동설화’라는 설명이다.

혁거세신화는 태양신 숭배사상에 따른 천마신앙 등이 강조된 북방문화의 계보에 속하는 신화라고 하였다.⁴⁷⁾ 혁거세신화와 김알지신화는 천강설과 난생설로 이루어진 복합형으로 북부로부터 남하한 계보의 신화에 속하는 광명사상으로서의 천강설과 일광감정으로의 난생설이 합류한 복합형이라고 하였다.⁴⁸⁾ 혁거세 국조 신화가 김씨의 시조 전승인 알지와 유사성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혁거세 전승은 알지 전승과 유사한 점이 있다는 점은 두 전승이 일정한 관련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뿐만 아니라 알지 쪽이 요소적으로 혁거세 전승보다 더 오래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⁴⁹⁾ 그렇다면

44) 양주동, 『고가연구』, 박문서관, 1942.

45) 末松保和, 『新羅史の諸問題』, 東洋文庫, 1954, p.111.

46) 김정학, 「조선신화의 과학적 고찰(1)-태양신과 우주난설화-」 『사해』 1, 1948, p.84~87.

47) 이은창, 「신라 신화의 고고학적 연구(1)」 『삼국유사의 현장적 연구』, 신라문화재학술논문집, 1990, p.89.

48) 이은창, 위의 논문, p.71~72.

49) 三品彰英, 『三國遺事考証』上, 塙書房, 1975, p.413

혁거세 신화는 오히려 알지 전승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알지는 마립간기 이후 왕위를 세습해 나갔던 김씨의 시조전승이라는 점에서, 혁거세는 소위 ‘박씨’로 표현했던 신라 초기 왕실이 아니라 오히려 ‘김씨’ 왕실과 관련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혁거세를 국조로 하는 건국신화는 ‘김씨’계 왕실과 관련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한다.

신라는 사로국을 모태로 주변을 복속시키면서 성장한 나라이다. 그런데 왜 사로국의 시조인 알영이 신라의 국조가 되지 못하였을까? 내물왕대의 전진과의 교섭 기사에서는 전진의 부견이 재위했던 357~385년간에 신라에 큰 변화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 시기는 마립간기로 왕계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다. 성씨를 소급해 보면 마립간기에 김씨가 대두되면서 왕위가 김씨에 의해 독점되었다.

그런데 사로국에서 시조로 인식했던 알영은 김씨의 직계 조상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김씨 집단의 족조인 알지를 국조로 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마립간기 직계 조상들을 숭모하는 한편 사로국 공동체 공동의 전통적 조상의 존재를 현양하는 노력을 경주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하였다.⁵⁰⁾ 왕의 직계조상만을 위하는 편협한 조상 숭모의식을 펼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았다.

신라 국가의 성장과 함께 족단적 기반을 넘어선 범신라적인 국조를 내세울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사로국은 주변 소국을 통합해 나가면서 국가 제사를 편제했으며, 이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통일된 신화체계가 필요했을 것이다. 진한 여러나라에서 숭배되던 천신을 혁거세로 인격화하여 신라의 국조로 재정립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다원적이고 이질적인 부족신화의 위에 혁거세설화를 뮐으로써 시조신화로서 국론을 통일하려 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⁵¹⁾ 이에 혁거세를 중심으로 하나의 통일된 구심점이 수립되었다. 혁거세가 국조가 되면서, 사로국만이 아닌 신라 전체의 시조로

50) 김기홍, 앞의 논문, p.378.

51) 문경현, 앞의 책, p.36.

서 자리매김한 것이다. 이제 진한 여러 국가들이 자체적으로 행하던 제천의례가 중앙에서 일원화하여 체계화하게 된 것이다.

V. 맺음말

현전하는 신라의 문헌자료에는 혁거세를 국조로 하는 건국신화가 실려 있다. 신라는 사로국을 모체로 주변 진한 여러 나라를 병합하면서 성장하였다. 그러므로 신라 문헌자료에 보이는 초기 기록은 사로국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나아가 혁거세는 신라 초기 왕실인 소위 ‘박씨’의 시조이자 사로국의 국가시조로 이해했다.

그런데 검토 결과 혁거세 신화에서는 역사적 인격으로서의 성격이 나타나지 않았다. 혁거세 신화는 고구려나 백제의 건국신화와 같이 건국시조가 건국과 관련된 활동이나 면모가 전혀 보이지 않으며, 영웅전승적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반면 신격으로서 광명신, 천신의 성격이 두드러졌다. 이는 혁거세가 사로국 형성과 관계가 있는 역사적 시조가 아니라, 관념적으로 만들어진 시조였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한편 혁거세 신화는 알영 전승, 6촌장 전승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혁거세는 6촌(부)장들의 요청에 의해서 하강하고, 6촌(부)장들의 추대에 의해 즉위하며, 즉위 후 유일한 정치 행적으로 6부순행이 나타난다. 혁거세를 국조로 하는 신화는 6개의 중요한 집단이 국가를 구성하고 있던 상황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혁거세 신화는 사로국 단계가 아닌 신라 국가 단계의 건국신화로 이해했다.

사로국 단계에서는 조상신과 천신 두 가지 계통의 제사가 있었다. 혁거세는 천신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천신 신앙과 관련이 있으며, 조상신은 별도로 있었던 것으로 보았다. 신라의 건국신화에서 알영이 혁거세 못지 않은 비중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사로

국에서 시조로 인식되었던 존재는 알영으로 보았다.

이러한 이해는 혁거세가 신라 문헌자료에 나타나는 초기 왕실과 관련이 없음을 보여준다. 혁거세는 ‘박씨’ 표현되었던 초기 왕실의 시조가 아니다. 혁거세의 신화적 속성은 천강신화이며, ‘알지거서간’이라는 표현 등에서 오히려 김씨의 시조인 알지 전승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오히려 김씨 족단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마립간기는 ‘김씨’가 왕위를 독점해 나가던 시기이며, 사로국이 주변 소국들을 병합해 가면서 신라 국가를 성립시킨 시기이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혁거세를 국조로 하는 건국신화가 형성되었다. 마립간기에 설립되는 신궁은 바로 혁거세 국조 인식과 관련이 있었다. 이 사금 단계에 알영, 탈해, 알지를 시조로 하는 시조 전승이 있었으며, 마립간 단계에 이르러 이들 족단을 포괄하는 신라의 국조 신화인 혁거세 신화가 형성된 것이다.

마립간기 이후 김씨들이 왕위를 독점하면서 새로운 국조 신화체계를 모색하게 되었다. 김씨 족단은 알지를 시조로 전승이 있지만, 신라 전체의 국조로 내세우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신라로 국가 체계로 성장하면서 특정 족단과 관련된 시조 전승이 아니라 각 족단을 포괄하는 국조 신화를 형성할 필요가 있었다.

원시적인 족단별 시조신화를 흡수하면서, 사상적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국가 시조가 필요하였다. 이에 천신인 혁거세를 국조로 하는 건국 신화가 형성되었으며, 사로국 단계의 시조인 알영은 혁거세의 부인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혁거세는 사로국만이 아닌 신라 전체의 국조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이와함께 진한 여러 국가들이 자체적으로 행하던 제천의례가 중앙에서 일원화하여 체계화하게 되었다.

투고일(2019. 4. 5.) 심사일(2019. 4. 17.) 게재 확정일(2019. 4. 25.)

<참고문헌>

『三國史記』, 『三國遺事』

- 강종훈, 『신라상고사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 김두진, 『한국고대의 건국신화와 제의』, 일조각, 1999.
- 나희라, 『신라의 국가제사』, 지식산업사, 2003.
- 문경현, 『신라사연구』, 경북대학교 출판부, 1983.
- 선석렬, 『신라국가성립과정연구』, 혜안, 2001.
- 이병도, 『한국고대사연구』, 박영사, 1976.
- 전덕재, 『신라육부체제연구』, 일조각, 1996.
- 채미하, 『신라 국가제사와 왕권』, 혜안, 2008.
- 최광식, 『고대 한국의 국가와 제사』, 한길사, 1994.
- 홍기문, 『조선신화연구』, 사회과학원출판사, 1964(지양사 영인, 1989)
- 황패강, 『한국의 신화』, 단국대출판부, 1988.
- 강종훈, 「新羅 上古期 金氏 族團의 出自 - 尼師今時期 百濟關係記事와 관련하여-」 『한국사연구』 102, 1998.
- 권오엽, 「삼국사기의 박혁거세 신화」 『일본문화학보』 31, 2006.
- 금장태, 「한국 고대의 신앙과 제의- 그 구조의 종교사학적 고찰」 『同大論叢』 8, 1978.
- 김기홍, 「신라 시조 박혁거세의 실체」 『통일인문학』 61, 2015.
- 김병곤, 「고대 삼국의 시조관 성립과 변천」 『역사민속학』 29, 2009.
- 김병곤, 「사로국의 출범과 신라인의 건국관」 『신라사학보』 23, 2011.
- 김병곤, 「혁거세 세력 등장 이전의 사로 육촌」 『한국고대사탐구』 24, 2016.
- 김선주, 「신라의 알영 전승 의미와 시조묘」 『역사와 현실』 76,

2010.

- 김선주, 「신라의 건국신화와 關英」 『新羅史學報』 23, 2011.
- 김선주, 「신라의 五陵과 시조 인식」 『新羅史學報』 33, 2015.
- 김정숙, 「신라 신화의 역사적 기능 및 그 인식의 변천」 『경북사학』 23, 경북사학 회, 2000.
- 김정학, 「조선신화의 과학적 고찰(1)-태양신과 우주난설화-」 『사해』 1, 1948.
- 김택규, 「신라의 신궁」 『신라문화제학술발표논문집』 8, 1987.
- 김철준, 「신라 상대 사회의 Dual Organization」 상, 『역사학보』 1, 1952.
- 문경현, 「신라건국설화의 연구」 『대구사학』 1, 1972.
- 박대재, 「신라 초기의 國邑과 6村」 『新羅文化』 43, 2014.
- 박종성, 「新羅神話의 形成과 新羅上古史의 한 단서」 『口碑文學研究』 13, 2001
- 서철원, 「朴·昔·金 시조신화의 대비를 통해 본 新羅 始祖 관념의 형성 단서」 『신라문화』 40, 2012.
- 선석렬, 「사로국의 지배구조와 갈문왕」 『역사와 경계』 80, 2011.
- 신경득, 「신라 초·중기 弗矩內 뉘 연구」 『南冥學研究』 25, 2008.
- 신종원, 「삼국사기 제사지 연구」 『사학연구』 38, 1984
- 윤경수, 「박혁거세신화의 원형상징성 : 신화의 원천 고증을 중심으로」 『比較文化研究』 7, 1996.
- 이은창, 「신라 馬刻文土製品와 가야 鎧馬武人像土器의 계세사상과 신마신앙」 『신라가야문화』 11, 1980.
- 이재수, 「박혁거세전설논고」 『고병간박사송축기념논총』, 경북대학교, 1960.
- 이종욱, 「혁거세신화를 통해 본 서라벌소국의 형성」 『한국고대사탐구』 24. 2016.
- 이종태, 「삼국시대의 ‘시조’ 인식과 그 변천」,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 정재교, 「신라의 국가적 성장과 신궁」 『역사와 세계』 11, 1987.
- 조범환, 「赫居世 勢力에 의한 斯盧 小國의 形成」 『서강인문논총』 48, 2017
- 조현설, 「건국신화의 형성과 재편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 주보돈, 「사로국을 둘러싼 몇 가지 문제」 『신라 국가의 기원과 전통』, 제22회 신라문화학술회의 발표문, 2002
- 최재석, 「신라의 시조묘와 신궁의 제사 : 그 政治的·宗教的 意義와 變化를 중심으로」 『동방학지』 50, 1986.
- 최진원, 「韓國神話考釋(3); 赫居世神話」 『대동문화연구』 25, 1990.
- 末松保和, 『新羅史の諸問題』, 東洋文庫, 1954,
- 三品彰英, 『三國遺事考証』上, 塙書房, 1975.
- 三品彰英, 「古代朝鮮に於る王者出現の神話と儀禮に就て」 『史林』 18권1~3호, 1936.
- 三品彰英, 『古代祭政 穀靈信仰』, 平凡社, 1975.
- 前間恭作, 「新羅王の世次と其の名につきて」, 『東洋學報』 15-2, 동경: 동양학술협회, 1925.
- 津田左右吉, 이부오 장익수 역, 삼국사기 신라본기 에 대하여 신라사학보 15, 2009.
- 濱田耕策, 「新羅の神宮と百座講會と宗廟」 『東アジアにおける儀禮と國家』(日本古代史講座 9), 1982.
- 濱田耕策, 「新羅の祀典と名山大川の祭祀」 『响沫集』 4, 1984.
- 井上秀雄, 『古代朝鮮史序説-王者と宗教』, 1978.

<Abstract>

The Background and Period of the myth that made Hyukgeose the founding father in Silla Dynasty

Kim, Sun Joo

Silla's founding myth describes the Hyukgeose as a national founder. Silla is a country that grew up in Saroguk. Thus, Hyukgeose has been understood as the founder of the so-called Park clan – the royal family of the early Silla Dynasty and the national founder of the Saroguk country. However, Hyukgeose does not have a clear image as a founding father. On the other hand, the character of the sun god and the heavenly god stood out as the divinity.

This shows the possibility that the Hyukgeose may have been a conceptual ancestor made in later generations. I understood that the founding myth, in which Hyukgeose is the country's founder, was formed at the stage of Silla not Saroguk. In Saroguk, There were two kinds of rituals, the Heavenly God and the Ancestral God. Hyukgeose was related to the Heavenly God. At the stage of the Saro Kingdom, People worshipped the ancestral god in addition to the god of Heaven, whose object was Aryoung.

The national myth of Hyuk-se as the founder of the nation was formed during the Maripgan period. A new palace was also set up against this change in the perception of the founder. Sungung was also installed against the backdrop of this change in the perception of the ancestor. The ceremony was not related to the so-called Park clan of the early Silla kingdom, but rather formed based on the Kim clan.

As the Kim clan monopolized the throne after the Maripgan period, it needed a national founder to encompass Silla, not the founder of a certain tribe. As a result, the heavenly god became a national founder of Silla at the

stage of the Saroguk period. Also, Aryoung, the founder of the Saroguk Kingdom, was transformed into a Queen of the National Dynasties.

Key words: Silla, National Foundation myth, Hyukgeose, Saroguk, National ancestral rites, Maripgan